

<2011년 2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 2월 4일 금요일 잠언과 같이 보세요.

2월 4일 금요일 잠언 한 번 더 전해 주고, 오늘 잠언 전해 주세요.

1. 피부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신경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나 성적으로 자극을 주어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이나 다 똑같다. 치료하여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주의 뜻과 생각으로 자극시키며 살아야 기쁨과 이상이 영원하다.
2. 아토피나 각종 피부병에 걸리면 간지러워서 안 긁고는 못 참듯이, 인생들 성적 사랑의 자극도 못 참는다. 피부병을 고치면 더 이상 안 긁듯이, 인생 사랑의 각종 병도 고쳐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본을 고쳐야 된다.
3. 피부병에 걸린 자가 순간 가려울 때 긁으면 시원하기는 한데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지옥 고통이다. 사랑의 각종 행위의 피부병도 그러하다. 긁는 것이 치료가 아니다. 고쳐야 된다. 언제까지 살이 벗겨지게 긁듯이 사랑의 행위로 마음의 간지러운 것을 해결하려 하느냐.
4. 머리를 안 감고서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고 손톱이 닳도록 두피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긁기만 하려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깨끗이 감아 버려야 한다. 인생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진정 간구하고 회개하고 행하여 근본을 깨끗이 해결하고 인생의 병을 치료받고 살아야 정상적으로 주와 함께 살게 된다.